

철도개량사업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개량 전	개량 후	세부내용
수도권 신호시스템 안정화	 [궤도회로 개량 전]	 [궤도회로 개량 후]	빈번한 열차운행으로 노후 가속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 구간의 신호시스템을 성능이 향상된 현대설비로 개량하여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열차 안전운행 확보
철도통신망 안정화	 [단선 통신망]	 [이중화 통신망]	KTX 운행구간 및 광역철도 노선의 통신망 이중화로 케이블 사고시에도 열차 운행제어와 여객취급에 필요한 각종 정보(음성, 영상, 데이터 등)를 중단없이 제공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에 기여
선로전환기 개량	 [선로전환기 개량 전]	 [선로전환기 개량 후]	열차운행의 고속화·고밀화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70년도부터 용한 선로전환기를 신뢰성이 향상된 시스템으로 개량
환경시설 개량	 [방음벽 설치 전]	 [방음벽 설치 후]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철도주변의 정오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 2010.1.1.일부터 강화된(야간 65dB~60dB) 소음·진동관리법에 적극 대처
소방안전 시설 개량	 [승강설비 개량 전]	 [승강설비 개량 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 교통약자에게 승강 편의시설제공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	 [스크린도어 설치 전]	 [스크린도어 설치 후]	수도권전철역 승강장의 열차접촉, 선로추락 등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하역사의 쾌적한 공기질 제공 및 소음개선을 위해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명	사업내용		
	개량 전	개량 후	세부내용
산업 안전시설 개량	 [교측보도 설치 전]	 [교측보도 설치 후]	교량·옹벽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개소에 교측보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원의 직무사상사고 예방 및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하고 지하역 승강장에 피난계단을 설치하여 비상시 승객이 역 및 안전한 구역으로 피난 유도
내진성능 보강	 [교량받침 개량 전]	 [교량받침 개량 후]	일반철도 기존시설을 대부분이 내진설계기준 마련 이전에 완공되어 내진성능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철도시설물은 지진에 취약하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을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켜 지진발생 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건널목 안전설비 확충	 [지장물검지장치 설치 전]	 [지장물검지장치 설치 후]	건널목 안전설비 노후화 및 구형화로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철도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널목사고를 경감하기 위해 설비의 현대화 추진
선로시설 개량	 [콘크리트도상 개량 전]	 [콘크리트도상 개량 후]	KTX 기존선 운행구간(경부선·호남선)의 열차 고속화·운행량 증가 등에 따른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궤도구조를 강화
전철 전원급전 안정화	 [변전설비 개량 전]	 [변전설비 개량 후]	전기차량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전철 변전소 변전설비를 확충하여 유사시 교통대란 대비
물류시설 개량			
하자관리	 [교량 하자검사]	 [터널 하자검사]	일반철도 개량 및 건설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중 국가계약법 및 시특별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하자검사를 시행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시행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 -



강원본부는 3월 10일(수) 철도공단 직원 및 철도건설 현장의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협력사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교량, 터널 등 공사를 해야 하는 건설현장은 계곡이나 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도도가 열악하고 소방서, 병원 등 구조기관이 멀기 때문에, 위급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4분내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해, 매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권오혁 건설기술처장은 “열차운행선 안전사고 및 추락, 전도, 낙하, 협착, 감전 등의 예방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철도를 건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자.”고 전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규제개혁 제안센터’ 신설

- 홈페이지에서 쉽게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제안 가능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국민과 기업들이 철도의 불합리한 규제에 겪는 불편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해 제안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에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해 3월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그 동안 공단 규제개혁팀을 구성하고, 간담회 등 자체검토를 통해 시·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제도 등 총 68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했고, 이번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해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보다 현실적인 규제발굴·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제안대상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주는 규제, 비용을 가중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규제개혁팀의 검토 및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알려주기로 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부이사장 직속의 미래발전 TF팀을 지난 1월에 구성하여, 규제개혁 추진은 물론 조직성과, 노사상생 분야에 대해서도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

